



미친 사람이 한국 교회의 미래

◎ 조성표 (전임 실행위원장, 경북대 교수)

지난 2년간, 부족한 제가 실행위원장으로 소임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많은 동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부족하니 많은 분들께서 나서 주셨습니다. 학회장으로, 교육본부장으로, 부실행위원장으로, 각 위원회의 장으로 섬겨주셔서 참으로 감사하였습니다. 특히 제가 지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분의 간사들께서 그 거리의 격차를 훌륭하게 메워 주었습니다.

80년대 중반, 제가 20대일 때, 기독교학문연구회와 기독교대학설립동역회가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30년이 된 셈이지요. 초기 기독교대학설립동역회의 이사이셨던 김준곤 목사님 생각이 납니다. 이사회를 마치고 나가실 때, 배웅하여 드렸는데 따라 나온 우리를 보고, “자네들이 우리나라 교회의 미래야. 선진국은 배운 사람일수록, 젊은 사람일수록 교회를 떠나는데, 우리나라는 자네들과 같이 젊은 학자들이 이렇게 하나님 일에 열성이니 한국 교회의 미래가 참 밝아”라고 칭찬하여 주셨습니다.

당시에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 의미를 몰랐습니다. 단지 이사님께서 우리들을 격려하여 주시는 것이겠거니 생각하고 감사하다는 생각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항상 저를 따라 다녔습니다. 힘들고 그만 두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김준곤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자네들이 한국 교회의 미래야!”

그런데 30년이 지나고 나니, 최근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총회에서 지난 해 사역들을 보고 드렸습니다. 기독교문학회 개최, 학술지 신앙과학문의 발행, 월드뷰 발간, 교회에서 영화 상영과 비평, 세계관 콘서트, 세계관 교재 발간…….

이런 일들이 별거 아닌 듯 사소하여 보여도, 하나님의 진리를 이 땅에 선포하고,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우는 참으로 유익한 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김준곤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구나!’를 이제야 그 의미를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의 사역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비록 몇 백 권정도 팔리는 책이라도, 200명 정도 모이는 학회지만, 월드뷰도 읽는 사람이 얼마 안되어 이런 일들이 보잘 것 없는 일인 듯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무엇보다도 강력한 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김준곤 목사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친 사람이 있어야 해. 사람이 많다고 일이 되는 것이 아니야. 미친 사람이 사역을 이끌어 가는 거야.” 그렇기에 우리 동역회에도 미친 사람이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올해가 우리 동역회에 매우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입 실행위원장이신 김태황 교수와 40~50대 실행위원들로 동역회를 이끌어 가는 임원진이 구성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여 보니 그동안 김승욱 교수와 제가 너무 오랫동안 동역회를 붙들고 있었나 하는 생각마저 들 만큼, 젊고 의욕이 넘치는 새로운 임원진들이 구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동역회는 새로운 세대에 미친 사람이 많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손봉호 이사장님께서 총회 말미에 신년 하례사에서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미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미친 사람!” 사도 바울도 베스도 총독으로부터 미친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손 이사장님께서서는 “예수님의 진리에 미친 사람은 사도 바울의 반열에 든다”고 격려하셨습니다. 이사장님의 격려의 말씀을 듣는 순간, 갑자기 정신이 펴뜩 들었습니다. ‘그렇다! 미쳐야 사도 바울처럼 된다.’

우리 동역회는 임원을 마쳐도 각자 일을 찾아 하기로 하였습니다. 김승욱 교수는 가장 어려운 월드뷰를 맡고 있고, 장수영 교수는 대학원생 모임을 평생 하겠노라고 나섰고, 저도 한 꼭지 일을 찾아 계속 섬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세우는 일에 작더라도 미치면, 나중에 나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딤후 4:7).

예수님께 미친 사람, 하나님의 진리를 세우는 데 미친 사람, 이런 분들이 한국 교회의 미래입니다! 